

NEWS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500만 향우,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힘 보태

▶1면 '가을 전남'서 계속

인터넷티브 미디어와 영상이 결합된 현대적 전시부터 운두서 거장전을 비롯한 전통 수목의 계보까지 아우르며, 관람객은 전통과 현대를 오가며남도 수목의 새로운 방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는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된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기우는 K-농업'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인공지능 로봇, CES 혁신상을 수상한 농식품 기술 등이 실증된다. 25개국 38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40만명 이상 관람을 목표로 하며, 청년창업농마켓과 투자 IR, 어린이·청소년 체험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농업의 현재와 미래가 현장에서 맞닿는 자리다.

이처럼 가을 전남은 문화·산업·스포츠·역사 자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메가 시즌'을 보낼 전망이다. 전남도는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숙박·교통·음식·관광 소비 증대는 물론, 생활 인구 증가와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1면 '세계양궁대회'서 계속

결승전 티켓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를 포함해 총 3448매 중 2865매가 판매돼 77.3%에 달하는 판매율을 기록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종일권·오전권·오후권 등 다양한 세션권 방식을 도입했다.

또 이번 양궁대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완성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회 기간 경기 운영, 안전 관리, 통역까지 현장 업무를 맡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했다. 홍보와 응원 활동 등 대회 분위기를 만드는 3200여명의 시민 서포터즈 모두 한 뜻으로 대회 운영을 함께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는 폭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활동하며 선수와 관람객을 지원했다. 가장 기본적인 식수 관리부터 경기장 내 통역, 인파가 붐비는 장소의 동선을 안내, 비가 쏟아진 경기장 관람석을 닦고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열심히 뛰며 경기장을 빛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양궁대회의 성공 개최는 140만 시민의 성원과 양궁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광주는 이제 단순한 개최 도시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천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한마음 대축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협력·기부금 전달로 지역발전 선도

전남도와 향우들이 고향발전과 전남지역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전남도는 13일 경기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웅)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000여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계호, 박흥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순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각 지역 향우회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 향우회로 구성됐다. 향우회 추산 광주·전남 출향민 규모는 약 5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선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상호 발전 협약, 전남도와 고향사랑실천 활성화·전남 메가 이벤트 성공개최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 전달식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출향민 고향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담은 협약을 하고, 박람회 종료 시까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시도민회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공익적 가치 확산,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과 기부 활성화, 2025 국제농업박람회·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 국립대 신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경기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전남 7대 핵심공약 이행,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온라인 판촉 협력 등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하리다.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

은 전남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며 "변화 없는 애환심 덕분에 국립대 설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산 13조6000억 돌파,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등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58만명 돌파 성과도 향우 여러분과 함께 더욱 키워가겠다. 'OK NOW' 전남, 지금은 전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신용근린공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시, 주민설명회...현대백화점그룹 사회공헌기금 추진

광주 신용근린공원이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북광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민관 협력형 신용근린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을 비롯해 김나운·채은지 광주시의원, 신용동·건국동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2일 현대백화점그룹, (사)생명의숲과 함께 '민관 협력형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절차로, 신용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구상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형 도시공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생명의숲이 공원을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 조성 대상지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산 35-1번지 일원(용두초교 인근)으로 면적은 2만7869㎡(8400여평)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생명의숲은 '모두함께-빛물숲'을 주체

로 신용근린공원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신용근린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마을 문화소, 함께공유소, 성장체험소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접근가능한 산책로 조성,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한 조명 및 화장실 설치 등 제안이 나왔다.

강기정 시장은 "신용공원은 '빛물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인사청문특위 활동 개시

광주시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문기사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이며, 재단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자 자질 검증에 관한 자료

과 인사청문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8대 전략과제 34개 실행 과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와 조직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장애인 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대책, 정책개발에 따른 시민영사업 진행,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성과계획서 및 성과 평가, 시 1인가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와 함께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정확한 자료 작성 등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장승기 기자 sky@

전남 출신 한창훈·박정보, 치안정감 승진

치안감은 고범석·김영근

무안 출신인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과 진도 출신인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전남출신 2명이 지난 1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한창훈 치안정감 승진자는 무안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4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임원했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교통안전담당관실 안전계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안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을 역임해 교통 기능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영광경찰서장, 서울성동경찰서장을 지냈다. 2021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장, 광주경찰청장을 역임했다.

박정보 치안정감 승진자는 진도 출신으로 경기 성남서고와 고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4월 간부후보(42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전남 진도경찰서



한창훈

박정보

장, 경찰청 사이버안전 디지털포렌식센터장, 경기 파주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양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수사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박 원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광주청 수사부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이와 함께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도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9명의 치안감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도 목포 출신 고범석(경찰대 8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함께 출신 김영근(경찰대 6기)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승진자의 보직 인사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